東亞日報
夕刊
六月二十五日(金)

獨伊艦艇無斷游弋時 對西戰爭行爲로看做

今後의海上監視英佛이分擔

英佛兩國의强硬對策

【巴里二十四日發同盟】英佛兩國政府는 獨伊兩國政府의 國際監視制脫退에 伴하야 協議한結果 英佛兩國 海軍은 西班牙沿岸의 海上監視에 當하는一方 西班牙近海를 游弋하는 獨伊兩國艦船에 對하야서는 强硬態度로써 臨하기로되엿다고傳하다 A・P巴里支局은 右에關하야 二十四日에傳한 가장 信賴할만한側의 情報라하야 英佛兩國政府間의 對策을 傳하고잇다

一、英佛兩國政府는 地中海에서의 權益을 擁護하기 爲하야 今後 西班牙沿岸의 上監視를 兩國海軍에서 分擔하나(寫眞右英首相左佛首相)

一、獨伊兩國艦艇이 不干涉委員會의 許可를 得치안코 西班牙近海를 游弋할時는 西班牙에對한 封鎖工作即戰爭行爲로 認定한다

伯林駐剳英國大使는 可及的 速히 獨逸外相 노이라트男과 會見하리라 傳하는데 伊太利艦隊는監視隊로부터 脫退後도 西班牙近海에 남어잇어서 伊太利의 權益擁護에 當할方針이라고傳하며 獨逸艦隊도 어미 지브랄타方面으로부터 東部西班牙近海에 出動할形勢이므로 英佛兩國政府의 强硬態度는 重大한影響을 喚起하리라고 豫想된다

地中海上의怒濤激浪漸高

獨伊艦陸續集結

西班牙海上俄然險惡

【지브랄타二十四日發同盟】獨逸政府는 國際監視隊脫退와 同時에 二十三日午後小型戰艦에 出動을 命하고 目下 西班牙近海에 向하야 急航中이다 從來監視隊에 從事中의 小型戰艦도 行動을 가치하고잇다 二十四日 새벽 入港하엿다

以上 艦艇의 가는곳은 獨伊艦隊가 附하고 잇으나 西班牙海上은 俄然 險惡化하게 되엿다

蘇聯官憲의 日本船拿捕

最近에頻發

【東京電話同盟】朝鮮高等水產學校練習船이 蘇聯監視船에 拿捕되엿다

皇太后陛下 第五十三回御誕辰

【東京電話同盟】京都皇宮에 御滯在中이옵신 皇太后陛下께옵서는 二十五日 第五十三回 御誕辰을 맞으시어 御氣分조흡시게 拜察되엿다

秩父宮殿下 馬術競技御覽

政務官決定의 內日臨時閣議

決定의經緯와詮衡의三重點

【東京電話同盟】政務官決定의 臨時閣議는 午前十一時四十分 近衛首相以下各閣僚出席 中島鐵相缺席으로 開會

政務官詮衡 政友總務會承認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二十四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本部에서 總務會를 開하고 松野幹事長으로부터 政務官詮衡의 經過를 報告하야 承認을 求한結果 一同은 이를承認하엿다

政務官人選問題 各方面에서好感

新黨問題再燃의 氣味도보여 今後推移가注目處

一、政革政策에關한 閣議를 가진것
一、政府에 協調할것

政務官制度에 大改革要望

次官參與官區別撤廢?

"貴革"一步錯誤면 內閣의運命에大關

貴院內에深刻한反對論擡頭

【東京電話同盟】貴族院改革問題는 近衛首相과 會見하고 貴族院改革問題를 中心으로 研究會에서는

一、有爵議員數의 減少
一、勅選議員의 任年制
一、多額議員制

現在의日中關係 悲觀할것은없다

赴任을압두고 川越大使談

【東京電話同盟】川越大使는 二十五日 正午 歸任의 途에 오르게되엿는데 出發의 前夜 左와如히 말하엿다

川越大使歸任

有吉明氏逝去 元駐中大使

【東京電話同盟】元駐中大使 有吉明氏는 二十五日 午前七時 東京市芝白金三光町 二七三의 自宅에서 入浴中 突然 腦溢血로 卒

哈市蘇總領事 二日歸國 極東部長就任?

【哈爾賓二十三日發同盟】本國의 命令을 受한 哈爾賓駐在 蘇聯總領事 스라우츠키氏는 家族同伴으로 二十三日 午前 歸國하였다

보야르코브路의 保障封鎖强化? 蘇聯砲艦五隻出動

【齊齊哈爾二十四日發同盟】

人事이如何튼 興味잇는일

社會大衆黨意向

政、民大體로滿足

民政小泉幹事長談

政友松野幹事長談

消息

橫說竪說

謝近火見舞
鍾淵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京織染織株式會社
京城紡織株式會社 永登浦工場
合資會社京城煉瓦 永登浦工場
昌和工業株式會社
朝鮮皮革株式會社
東洋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早漏立止 性强大藥器 富興公司藥品部

小資 金儲相談

本報京城販賣所 【電光七三〇番】

印入タオル 東洋染織捺染部

生徒募集
△測量科 百名
△土木科 五十名
△建築科 五十名
京城測量技術講習所
京城工學技術講習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 (電光二十八九)

就職近道 大滿測量學院 學生募集

提要 藥物學講義
洋裝、菊版、總布製、金印全一冊
京城齋洞町一二 壽星堂製藥所

ClibPDF - www.fastio.com

南海峽에서 朝鮮으로 비실은黑雲이來襲!

【仁川觀測所發表】

【인천】 우기(雨氣)가차차 접근하여진다는 소문만을 듯고서도 一반이 잠잔위안을 하는것이 사실이나 실제에잇어서는 비를몰아올수가 없어서 구름장을 바라보는 초조한 방향은 떠옷 가절하데 방향안의 기압배치(氣壓配置)를 …

황해도 (北海道) 방면에도 저기압이 발생하는 등 저기압이 점차 …

黃海、平南、咸北三道에 旱魃의憂慮尤甚

移秧한것 조차 마르는形便

平年雨量보다도減少

금년 느진봄으로부터 여름에 들어 강우량이 전조선적으로 적어서 한발의우려가 저지안튼바 최근에 일으러서는 황해도 평남(平南) 함북(咸北)은 한발이 아니라 … 이미 이앙한 모들도 말라죽을형편으로 … 비가오지아니하면 논바닥을 갈라지게하고 …

	今年六月中旬	平年六月中旬
仁川	一六、七	四三、九
京城	三、五	一六、八
江陵	一、一	三三、〇
平壤	九、四	三四、八
元山	五、五	四四、六
新義州	七、三	一一、七
城津	一五、二	二一、七
中江鎭	三〇、二	二六、九

降雨며旱魃解消

南朝鮮은念慮없다

… 한발문제에 대하야 … 이앙(移秧)기사는 … 물론 전조선적으로 한발이 계속되고잇으나 … 남조선지방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우려할것은 아니라 한다.

身體虛弱悲觀 老婆飮毒自殺

부내 … 의四十八호 어 … 머니 유씨(劉氏) … 오후六시경 그의 자택에서 다량의 양잿물을 마시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 오후十시三十분 절명되엿다.

밥때가되면 나타나는 十六萬의색끼잉이

保溫列車타고鎭海出發

削耳十個

京仁運河開鑿

妙案이어 期成會組織

【인천】 경인간의 운하 … 상수도개착 … 경인운하 …

住宅密集區의小路 住民의負擔으로改修

明年부터着工、府에선僅三割負擔

圓滑한進捗을難期

注視되는〃미술會總會〃

京城、大邱 學校問題에言及

平壤에서開幕第一日

【평양】 미술회총회는 … 이에대한 예비회(豫備會)는 … 사진은 미술회총회 첫날의광경

奉天行旅客機墜落

即死二名、負傷七名

【안동현】 만주국정기항공회사 여객기 … 지난 二十一일오전十시에 신의주서 출발하여 봉천(奉天)으로 가든도중 … 十一시四十분경에 … 추락되어 비행기는 부서지고 승객 … 七명은부상되엿다한다.

▲死者二名 ▲負傷者七名

五十錢銀貨붙은엿 단五錢에 팝니다

鐵路邊에잡혀온엿장수 罪는사는사람에게잇다

上人臣흉내 高飛한雇女

飮毒한雇傭女

남편이 동거하잔는다고 生活難의人情悲劇

鐵道의電氣化

京仁에 複線이되면 이도電化

福溪、高山間에先着

龍山構內에서 貨車二輛脫線

朝拳俱樂部 新築

十周記念事業

研武館柔道 昇段進級戰經過

卄五回마라손 卄六日에擧行

朝鮮風水費 五十一萬圓

上砂崩壞로 人夫가埋沒

京城勞組公判

午後에求刑잇으리라

朔州九寧浦에 製材工場新設

線路에橫臥 乞人이自殺

昨夜、漢南町에서

十七個邑昇格

七月一日부터實施

▲京畿道 安城 ▲忠南道 … ▲全北道 … ▲咸南道 新浦 ▲咸北道 吉州

平壤大盜

端緖얻지못해

移民問題로討議

治外法權撤廢協議會서

鐵道賣店에 衛生施設通牒

傳染病防疫陣

卄八萬圓을各道에分配

第一回 아마추어 拳闘優勝盃爭奪戰

申請 六月三十日午後四時까지
日時 七月一、二日午後七時半
場所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主催、全朝鮮아마추어拳闘協會
後援、東亞日報社

天氣豫報

◇槪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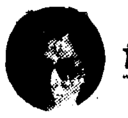
◇豫報 …

ClibPDF - www.fastio.com

一人一書 (16)

불구자의 특권

高향京



남과같이 사지(四肢)를 못가지고 이상구비를 똑바로못가지고 세상에 난자를 불구자라고 부른다. 혹은 다가지고 낫드라도 그작용을못하면 그역시 불구자이다. 그러면남과 갈이 사지백체가 구비하고도 한세상지나가기가 힘이 들거든 하물며 그것조차 구비치못하고 지나가려는 고통이 얼마나될가. 설혹 주위의 사정이 조하서 특별한 불편업이 지난다하드라도 남과갈이 육체가 구비치못하엿다는 그것만이라도 불구자 고유의 슬픔이잇다.

그러면 불구자란것은 락오(落伍)와 령락(零落)외에는 아모 광명이업슬가 더욱이 당한자 자체로보면 그런것갈다. 그럼으로 대개 불구자란 락오와 령락을 사오하며 다인도 역시 그러케 기대하면서 불구자를 본다. 그러나 불구자가 아니면 가지지못할 특권(特權)이 한가지 잇다. 그것은 위대한노력으로 비상의 분투이다.

그러면 무슨까닭으로 보통사람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업고 하필 불구자에게만 잇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미잇는 철학이다. 사람은 제한받은 생(生)가운데 제한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사람의 몸과 맘은 무한한 보물창고이다. 쓰면쓸수록 빗나지고 자-ㄹ 이오면 올사록 새로워지는 신비한물건이다. 자극이크면 클사록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보배를 차즐수가잇다. 그러나 자극은 앎으다. 그럼으로 보통사람은 그것을피하기에 짧은생을 허우적거리다가 만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자이요 남이 부러워하는 인물이라고 범인(凡人)은 말한다. 아름다운 보물을 차저볼기회가없이 무념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불구자에게는 불구라는 쓰라린사실이 심각한자극이되여 어떠한 굳은 결심을가지게되며 그결심 한대로 행하기위하야 노력을아끼지안으며 결사의 분투를 하게된다. 사람속에 숨어잇는 무진장의 커다란보배는 여기서 처음으로나타나게된다. 사람은 불구자이나 바로 자극을 가질수가 잇다. 그러나 그자극이 불구자처럼 심각해지기가 극히어렵다. 그러므로 이자극을 맛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보물이 나오기가 어렵다.

삼중(三重)의 불구를당한 「헬렌켈러」양의 쓰라리고 앎음이야 어찌 보통사람으로 상상인들 할수가 잇스랴 그러나 그쓰리고 앎음이 크면클사록 그큰자극으로부터 피여나온 노력과 분투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하엿다는 것을 엿볼수가잇다.

신체의 모든기관이 구비하고 환경이 순조로운자로서도 외국어하나를 배호려면 힘이들거든 이불구자가 다―를 비한자로써 三, 四국어를 통달하게되기 이르기까지의 악전고투라는것은 형언할길이 업슬줄안다.

누구는 그를 천재라한다 그러나 천재발명왕 「에디슨」씨는 명백히 선언하기를 천재라는것은 백분지九十九가 땀흘리는노력이요 오직 백분지一만 령감(靈感)이라고 하엿다. 천재란 무엇인가 결국 땀흘리어 노력할줄 아는자이다. 다만 무사평온한때에는 노력이 나오지안어서 거정이다.

불구로 우는자여! 그쓰라린자극이 그대를빗내리니 위대한노력을 발휘할특권을 버리지말지어다. 모든것을 구비한자가 피상적(皮相的)행복에 타락할동안 불구자는 인류문화의 가장위대한공헌을 하리라고 믿는다.

家庭

아모리어려운살림에도 유리한가게부작성법 (完)

월부로 사는것이 재조가 아닙니다 예산을 바로세우자

월부는월급쟁이에게유리한가?

요새는 월부의 유행시대입니다. 양복월부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라디오도 월부, 二원만내면 설치한다는 것은 삼원의 간이없는 유혹에는 월급생이로서는 생전가도 혁복주고 양복해입기어렵고 아모리 싼라디오라도 二十원내외가되니까 五、六十원 월급으로 는천생이 라디오설치할수가 없는것이니까 월급쟁이에게는 월부로 살수잇다는데 가장매력을 느끼게 되는것이오 사실에잇어서도 이런 특전이없다는 월급쟁이는 양복하나 제법안전하게 사입을수 없이된것이니 실상 월부제도라는것은 고마운일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것은 월급쟁이는 박봉이어서 현금으로 사지못하는것을 상업하는이들이 못봐해서 사회사업으로 할고 봉사적정신으로 하는것이 아닌것이라는것은 작은경과해도 알수잇는일이니 물론 경쟁장이심한이 세상에서 아모런 이익도 없이 손님의 편리를위하야 월부로라도제공하는것이니 그를 나무다고 할수는 없을망정 장사를 하는사람이 큰돈으로 한번에 밧지못하고 푼돈으로 받는이상 손을보아가며 월부판매를 할까닭은없다는것은 극히 상식적으로도 알수잇는일입니다.

六、七十원받는이가 월부바람에 가구도 월부 양복도월부 구두도월부 라지오도 월부로만살게서야 월급에 받든 월부주머니가 월부만주고 나도 빈봉투가 될것이니 살하는 가게부이라고 한것은 못합니다.

이섯은 수부가 혼자하는일이아니오 남편이밖에서 월급 받는것으로 월부가 지불한수에 가해다 너 차차 겨시가 나제하고 월급날 봉투째 부인에게 갖다주기는 하엿으나 속에들기는 몇원에 불과하고 살아가되면 마이너스가되는 경우가 없지아니하니 부수재미로 월급을 기다릴것이며 안해로서 아모리 살림을 살아나고 애를 쓸들 무엇합것입니까.

없다고 야단하는 남편이 세시지나아니하지오? 자기의 지불할여야할 생각지안고 옆에사람이 수분이는것을부면 한번에 二、三원지불하는 예수가서 은것만 생각하야 당장에 없어서 는일납것이 아니라도 수로들해도 고 월급에 아빠애써도 소용없읍니다.

월부로사는데는 얼마나손이되나

본가다 준생기반이지 얼마든주 월부로 사는것만 재조로알고 월부로사는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손 해될수잇는가를 생각해본일이 잇읍니까.

월부로 파는데는 집금하는비용이 듭니다 대금전부를 회수할때까지 자본을 유통못할뿐아니라 중간에 종당이 될지라도 잇오니까 그만큼 빗싸게받는것입니다. 가까운예를들면 어떤가정에서든지 가장필요품으로알고 사는 재봉기계 말습입니다. 일빽五十원식에 三十六개월월부를 내게되니까 一빽九十원이 됩니다. 일빽五十원짜리를 빽九十원에 사게되는것입니다. 가게를월부로 사는것도 그기게로 바느질삭을 주는 것보다 훨신싸게된다면 모르거니와 四十여원씩 더주면서 모양으로나 사노은것은 무의미한일입니다.

무엇을 사려면 사는셈 잡고 달마다 계금을 햇다가 사도록 하는 것이 주부의 할일입니다.

가게부는항해의 일지와같습니다

현금으로살때와 외상으로살때

돈이 좀 생겨서 지갑이 불룩해지면 안사도 조흘것을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는것이 보통누구나 다 같은 심정일것이오 월급날까지 죽을 관경으로 찻다가 돈을본 김에 돈좀 쓰고싶은것도 무리는 아니지마는 이러케되면 낭비가되어 예산초과가 됩니다.

그러나구해서 외상진을 하는것은 더 말할수없는 조치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현금을 내지 안흐니까 지갑에 직접 영향이 미치지는 안치마는 외상진이 얼마나 조치못하는것은 경험상 더 잘 아실것입니다.

가게는삼위일체 주의가절대조건

가게는 배가 항해하는것에 비할수 있나니 주부가 선장이면 예산은 나가반(羅針盤)인 봉시에 키(舵)가 되고 가게부는 항해일지가됩니다. 머리가 추치못한 선장은 때를 엇더리로 없는사으로 끌고갈것이오 또 현쳐한 선장이잇어도 계신키로서는 배가 바른길로 나갈수가없을것이니 집안에서 가계부를 작성하지안는다면 어떠한데 실패를하엿다나 살어날수가없고 언제든지 어떤에도 늘 만히쓴는데 당하는 막연한 한탄에 일몃이나 생활의 긴장을부르고 나이없을것입니다.

쓸데썻지 안쓸데썻다 하는 씨 멋지는대로 쓰는 지출이나 수입되지도 안흘것을 수입될것으로 알고 쓰다가는 「없으면 또어떠케되겟지」하면서 현재와 장래의 소비조절을 생각지안는 예산생활은 집안의 향상이 전혀없고 장래의 희망이 없고 수입을때까지 고통으로만지내게됩니다.

예산은어떠케 세워야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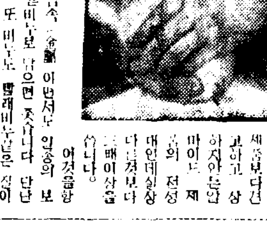
의미가 어데 잇겟습니까. 괴롭기는하면서 장내부수 이방이 잇어야할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것은 지어과수입 사비나수거비는 생업에없지 못한 그 범처음한이 예산해야 하나니 예산을 세울때는 재입중요한것입니다.

교육받은 주부로서 이만한것쯤 을실행하는데는 과히 큰노력이되는것도아니오 얼가족이 단란하면서향상해갈것이 틀림없읍니다.

이해없는 남편과도 의논하야가정의향상을 위한예산표를 보이고 년가지출을 생각해서 예산을세우고 어떤에나무리이나는 때는반드시사전에 상의를하다가 치우저거든 쓰도록하야 예산대로 실행할 각오를갓고 전가족이 이것을 지협것으로약속하면 되거나 예산보다 적게 쓰는때가 잇으면 그대로 두어야는 다음을 위하야 쓸때가 생길것입니다.

(주부의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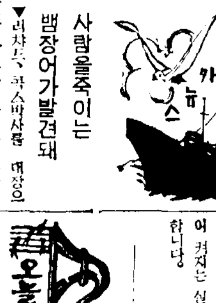


상처가나거나 부어서 아프게 하라면이것이나숙 이번서도 입종의 보석질(石質)인가 이에조흔비누로 남으면 좃습니다 단단한것은 휴이가고 또 바르도 빨래비누같은 나뿐것으로하게되면 오히려 조치못합니다.

北極으로 뻐치는 文明의손

과거에만흔탐험가들이 꿈을꾸며 탐험에성공도하고 실패도하든 북극(北極)탐험은 이번에 소비에트연방에서 견행하게되어 四十명대원이 「슈밋트」대장의 인솔아래 일년반동안 먹을식량과 연료(燃料)를 만재하고 三월二十二일에 모스크바를 출발하야 五월二十一일 오전十一시十분에 북극상공을 나르게되엇읍니다. 과거에 만흔희생이 잇엇음에도 불구하고 아모 단과이 없이 성공하엿다는것은 얼마나 파하엿 대원일행의 노력이 잇엇다는것을 알수잇읍니다. 사진은 북극양에서 떠다니는 어름덩어리의 기관입니다.

사람을죽이는 뱀장어가발견돼



▼아차가 하스파사를 대장으로 조직한 과학연구대는 뿌라질 깊은 삼림속을 헤치면서 탐험을 하던중 최근에 아마손강 상류지대에서 사람을 주입만한 강력의 전기를 발생하는 뱀장어를 발견하엿다고 합니다.

▼이전기 뱀장어는 보통 三백트 가량의 전기를 갖이고 잇는 고로 사람이 닥치면 기절할만큼 되는데 큰뱀장어는 五백빼트 가량되는 전력(電力)을 가지고 잇는 고로 조금만 다치면 감전(感電)이 되어 죽사를 하는것은 물론이오 실험중에도 조수가 이전기에 감전되어 공중으로 뛰어자랏다가 나가떨어지고 기절까지 한일이 잇답니다.

▼이 뱀장어의 전기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서 뉴욕 수족관(水族館)에서는 전령(電鈴)이 전등을 밝히게해노코 이 뱀장어가 전기를 일으키면 불이 들어오고 전등이 켜지는 실험을 해보인다고 합니다.

少年三國誌 (十八)

李傑

七、현덕의결심(決心)(一)

산양을 갓다온뒤부터 나라는 수선수선 하여젓읍니다. 조조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커갓읍니다.

현덕도 깊은잠을 이루지못하엿읍니다. 「어떠케 하엿으면 기우러지는 나라를 바로잡을가」하고 생각하엿읍니다.

임금님께서도 단잠을 주무시지못하고 생각하시엿읍니다.

이날밤답답은 유난스러히도 밝엇읍니다. 현덕은 밤이깊도록 어생가 시생가하고 잇을때 동승(董承)이 찾어왓읍니다. 자정이훨신 지낫는데 하인도 데리지 안고 혼자 찾어왓읍니다.

동승은 임금님의 황후 동귀비의 오빠엿읍니다. 동승은 품속에서 임금님의 밀조(密詔)(임금님이 써신 글)를 내여놧읍니다.

임금님이 당신손구락을 찌러 시피로써서신것이엿읍니다. 「조조를 나라에서 내여쫏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지이다.」

현덕과 동승은 이글을 읽고 어린애가치 잉엉 울엇읍니다. 어느듯동녘하늘이 훤하게 밝어 왓읍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러날줄 모르고 이야기하엿읍니다.

그뒤부터 현덕은 대궐에도 나아가지 안헛읍니다. 날마다 뒷밭에 씨뿌리고 김매고살엇읍니다. 그러나 한번도 한나라를 엇어버린적이 없엇읍니다. 어느때나 임금님을 생각하엿읍니다.

그러나 현덕의 마음을 아는사람은 없엇읍니다. 관우와 장비도 활쏘고 말달리기를 하다말고 「요새 형님은 웬일이요? 글읽고 활쏘기를 아조 그만두시니 상한일이어요?」하고 이상히 생각하엿읍니다.

현덕은 아즉까지도 동생되는 관우와 장비에게도 이일만은 말하지 안헛읍니다.

아모생각도 없는듯이 그날그날을 김매고 밭갈기로만 일삼엇읍니다.

오늘밤라디오 六月二十五日(金)

第二放送

▼六時○ 英語講座 竹友藻風

▼六時三十分 兒童과先生의時間 一、朗讀 黑鳥(讀本卷九、第十六課)五年生 二、對話劇 滿洲(讀本卷十一、第二十課)六年生 龍山普通學校

▼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趣味講演 各種의嬌溯 (公安、咸鏡南) 司空植

▼八時 講演 異人雜話(二) 崔南善

▼八時三十分 俗謠 一、花草四節 二、珍島아리랑 三、캐지나칭칭나네 鄭粉伊 曹吉全 吳善伊 朴順伊

▼八時四十五分 명물이소리―京城府淸凉里町附近野外로부터 全國中繼―(國際)

◎備考=명물이우는소리不能의時는스타디오에서如左放送= 農作歌 一、보리타작 二、방아타령 三、모심는소리 鄭粉伊 曹吉全 吳善伊 朴順伊

▼九時 西道歌謠 一、新發漢歌 二、배다라기 三、新調興達歌 四、군밤打鈴 五、夜月船遊歌 六、開城興達歌 閔亨植 李明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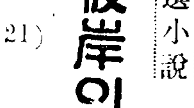
▼十時 地方으로보내는 ―人(國) 레코―드音樂(國語)(京城)

第一放送

▲六時(城)修養講座 ▲六時三十分(釜)物語 ▲七時三十分(東)レヴュ― ▲八時十分(東)管絃樂 ▲八時四十五分(城)メンコン鳴聲 ▲九時時事解說

當選小說 彼岸의太陽 (21)

李圭熹 作 盧心汕 畵



달밤 五

명군이처는 김서방이 한없이미웟으나 빚을 갚지못한다는 약점이 이쪽에잇으므로 어찌로 언짠은낯을감추고 한풀이꺾여서

「그러치만 아시다싶이 요번바람에만 하드래두 별수없이 죽엇던 사람이안여요? 게다가 조리를못해서 그런지 저러케 본병이 무슨수로이러니까? 어려우신대루 그냥가세요. 그냥가시면 별이라두 기봉을 할만하운 가서 뵈올 테니까요」

하고 간곡히 사정을하엿다. 무뚝뚝한 김서방인줄은 알지마는 아모리 남의밥을먹는사람이라구 해도 너무인정머리가없다구 속으로 원망을햇다.

김서방은 흥-하고 코웃음을치고

「아니 앉는것이 자세요? 편이 누어서앉는것두 제파자에 잇는일야래야지. 그래 동군네이 치때지 계된자자가 아주 파자조케 누어서 앉어보려구. 흥… 그러지만 부르는것이 달라요 아무리 괴로워도 좀 가야할걸요!」

하고 마치 죄지은사람을 잡으러온것이나 김서방은 성화를 햇다. 그리구

「예이」

하고 화를 벌거내면서

「명군이!」

하고 집이떠나가게 소리를 첫다.

이때 마침 잠이깨엇는지

「구구왓송?」

명군이의대답이 겨우낫다 명군이처는 목이 머리끝까지올라서 김서방을 결눈으로 흘겨보고 방으로드러갓다.

「거 누가왓서?」

명군이는 목이오른 아 얼굴을 처다보앗다.

「저 오주사가 부른다나。 그러타구 이아래 김서방이와서 당신을깨우라구 야단야단을 한다우。 몸이 편치안어서 못가다구해도 저러케 엿뚱땅이를 앵기게 지랄두하는사람은…」

명군이처는 욕이나오는것을 참엇다.

「이아래 김서방이라니?」

「아 왜 섯진아범인가 잇잔우?」

「응 섯진아범!」

명군이는 겨우 이러나서 허리띠와대님을맷다.

「그래 가시겟수?」

안해는 엄색없는 남편의얼굴을 바라보앗다.

「가봐야지 그 오가의령감이어찌밧구 지금 가는게오지」

하고 명군이는 비슬비슬이러섯다.

「거 갓것수?」

안해는 그래도 안타갑게 그러다

「아교진안으니까 그래두가지」

「머 먼기나하가 심산이가보지」

하고 명군이는 흥얼거리는데

「아 엽해? 언제나오잔고」

박에서 김서방의 호령이 들녀오다

「어어 나가네」

명군이는 나무당거리를 짚삼아서 ㅁ고 천천이 나아갓다.

「대관절 어데가 그리 아픈가?」 미안하이 그려!

김서방은 걱정이 나아하는듯이말햇다.

「괜찬으이」

명군이는 고소한다 김서방을 따라서 간신히 오주사의 집에까지 갓다.

김가는 사랑뒤스마루로 선웃음을 나가면서

「여가 명군이 옵니다」

하고 사랑미다지를 열엇다. 명군이도 따라서 드러갓다.

오주사는 아래스목에 비스듬이 누어서 담배를 피우고 말손이 무어서넛 장기를 두고잇엇다.

「그간 안녕 하세요? 부르섯답죠?」

하고 명군이는 그앞에 쪼그리고앉엇다. 오주사는 담배재를 재터리에 딱딱 털고

「응 왓나. 내좀 나갓다올테니 잠간누어잇게나」

하고 몸을 이르키엇다.

「어보글한잔해야지」

하니。

오주사는 발손을 다리고 술집으로가는 모양이엇다.

不快와憂鬱이雲散霧消케되는

性의更少年藥 出現

日獨醫學博士 性學權威 羽太銳治發見品

킹·오푸·킹스

服用하는날에는바로시히解決해줄것이니

老翁勿斷念、中年要熟考、青年大奮起

精力은엇재서 弱해지는가

醫學博士 羽太銳治

新妻의發見藥으로男子답게되엿습니다 長州 石秋波

나―에상가를도가게되엿습니다 車大壽

킹스의藥効는永久不忘하겟습니다 北靑 張正洪

킹·오푸·킹으로 男子의欲求를 사저주시요

註文은直接本舖로

價는 小函(一〇〇粒)二圓、中函(二八〇粒)五圓、大函(六〇〇粒)

東京市芝區 濱松町 十三ノ三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番)

ClibPDF - www.fastio.com

經=濟=話=題

金融의梗塞

下期에는緩和될까?

① 金弘鎭

[illegible]

金融梗塞深刻으로 事業界는大打擊

思惑資金의融通中止에이어 新投資資金까지影響

[illegible]

漁船의現代化 補助豫算議會提出

總督府案이

[illegible]

人絹加工

中小企業大企業 漸次對立의機運

[illegible]

滿洲粟關稅引下

全國稅關監督官會議에서 重要問題로議論

[illegible]

貿易振興懇談 七月一日開催

[illegible]

生產力擴充없이 輸出增大는無望

藏相金輸出力增大企圖

[illegible]

商品市況

▲雜穀低落 [illegible]

▲石炭强堅 [illegible]

◆雜穀類 (單位石)

[illegible]

◆炭類 (單位噸)

[illegible]

今日의市況

六月二十五日

株式 (單位十錢) [illegible]

期米 (單位錢) [illegible]

正租 (仁川) [illegible]

正米 (三等單位) [illegible]

商品 (單位十錢) [illegible]

時勢와市況

閑散裡 强保

株式

前場膠着 [illegible]

後場小軟 [illegible]

再次保合 當然의順序

財◎海◎餘◎波 [illegible]

期米

雨氣接近 警戒

前場頭重 [illegible]

後場同調 [illegible]

降雨待의場面

[illegible]

國債

反化 昂騰

△東京 [illegible]

△大阪 [illegible]

實物前場賣買價 [illegible]

財界

[illegible]

山一意外沈默 底鍛鍊은完了?

[illegible]

米豆餘塁

[illegible]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朝鮮紡織 ②

[illegible]

主要事業會社株便覽

[illegible]

海峽地方에降雨 低氣壓은發達 高氣壓은衰退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六月二十五日〕

海外金銀 (廿四日)

◎倫敦金塊一온스 七磅四片二分一

◎對英國替朝鮮銀行 一志一片十六分十五

◎國債換算一錢 十四圓五十七錢

◎倫敦銀塊時勢 十九片八分七

◎紐育銀塊時勢 四十四仙四分三

東京金銀 (時價)

[illegible]

京城金銀

[illegible]

各限俵合

[illegible]

正米 區區裡 軟調

京城不變 [illegible]

仁川不動 [illegible]

木浦保合 [illegible]

群山不變

[illegible]

大邱軟調

[illegible]

釜山小綴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金融 [illegible]

大通特報 [illegible]

商品 [illegible]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正米 [illegible]

雜穀 [illegible]